

<2015년 5월 31일 주일말씀>

배웠으니 전해라

본 문 마태복음 28장 18-2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<알파절 기념 주일예배>를 드립니다.

원래는 <스승의 날 말씀>을 전해 주면서,
오늘 ‘**연결된 것은 하나다.**’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려 했습니다.

그러나 오늘은 <알파절을 기념하는 주일>이니,
그 말씀은 다른 날 전해 주고,
오늘은 ‘알파절에 해당되는 말씀’을 전해 주겠습니다.

◎ <성약의 알파절의 의미>가 무엇인지 알지요?

선생이 성자에게 ‘시대 말씀’을 배우고
갖은 연단을 받고 준비한 후에,
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
서울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자고,
1978년 6월 1일부터 섭리역사를 시작했습니다.

그날 ‘성약의 복음 역사’를 처음으로 시작했으니,
매년 6월 1일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<알파절>로 정했습니다.

오늘은 <알파절 기념 주일예배>를 드리고,
내일 6월 1일 <알파절 당일>에는
전도 공적자들과 함께 월명동에서 <알파절 기념행사>를 합니다.

- ◎ <성약의 복음 역사를 시작한 사연>과 더불어 <알파절>에 대해서는
‘작년 알파절 주일말씀’을 통해 말씀해 주었습니다.

그래서 오늘은 모두 <이 시대 복음>을 듣고 배웠으니,
이제는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찾아서
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.

- ◎ 오늘 말씀의 주제는 ‘배웠으니 전해라.’입니다.

- 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선생이 10대 때부터 1978년까지 21년 동안,
<삼위일체의 성자>는 ‘예수님’을 쓰시고
내게 <이 시대 성약의 말씀, 휴거의 말씀>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

그동안 성자께 배운 말씀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도표를 제작하여
복음 전할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,
어깨에 ‘도표’를 메고 월명동 집에서 <서울>로 떠났습니다.

그날이 1978년 5월 23일이었습니다.

가다가 ‘배방산’에 들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
서울에 5월 31일에 도착했는데,
하룻밤을 자고 나니 역사를 시작하는 6월 1일이 되었습니다.

- ◆ 그때부터 ‘성경에 예정된 때’와 ‘연도’를 맞춰 가며
만나는 자들에게 <이 시대 복음>을 조금씩 전해 주고,
기도도 해 주고, 각종 병도 고쳐 주며
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.

선생은 ‘성자의 육’으로 쓰여지며
앞날을 알고 그때그때 행했습니다.

그러나 ‘큰일들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비밀이라서
선생에게도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.

- ◆ 처음에 한때는 <서울 삼각산 기도원 지역>에서 기도하면서,
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자를 만나
‘성자의 몸’이 되어 <시대 말씀>을 전해 주었습니다.

- ◆ 모두 <신약 주권권의 말씀>은 알고 있으니,
<새 역사 성약의 말씀>을 조금씩만 가르쳐 주었습니다.

그랬더니 은혜 받고 좋아하며 잘 들었습니다.

모순 없는 말씀이니, 감히 틀리다는 소리를 못 했습니다.

- ◆ <이 시대 말씀>을 이해 못 하는 자들에게는
설명해 주면서 가르쳐 주니,
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다고 하며
그동안 너무도 깊은 말씀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.

마치 어린아이가 ‘젓’ 만 먹고 살다가
크니 ‘고기와 밥’ 도 먹고 싶은데,
줄 자가 없으니 ‘젓’ 에만 만족하고 사는 격이었습니다.

- ◆ <신약말씀>은 어린아이가 먹는 ‘젓’ 과 같습니다.

어린아이 때는 ‘젓’ 만 먹고도 만족하지만,
크면 ‘밥과 고기’ 도 먹어야 만족합니다.

이와 같이 그동안은 ‘젓과 같은 신약말씀’ 에 만족했지만,
시대가 지나 그들도 성장하고 ‘새 역사의 때’ 가 오니
이제는 ‘밥과 고기 같은 말씀’ 을 먹어야 만족하게 됩니다.

그러나 <신약 주권권의 지도자들>은
‘밥과 고기와 같은 말씀’ 을 줄 ‘사명자’ 가 아니니,
계속 ‘젓’ 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

고로 계속 ‘젓’ 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.

- ◆ <시대 말씀>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성자가 주셔야 알지,
인간의 두뇌로는 ‘보통 사람들이 아는 차원’ 밖에 모릅니다.

<성약의 때>가 왔으니,
하나님과 성자가 보내고 가르친 ‘시대 구원자’ 가 와서
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고,
하나님의 뜻을 이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하나님의 구원역사는

<구약 - 신약 - 성약>으로 차원 높여 진행되며
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됩니다.

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

첫째,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<말씀>이 있어야 하고
둘째, 그 말씀을 전할 <구원자>가 있어야 됩니다.

- ◆ <구약>이 끝나니, 하나님은 <새 역사 신약역사>를 시작하셨습니다.

그리고 ‘구약의 모세’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말씀을
신약의 메시아 ‘예수님’을 통해서 하셨습니다.

곧 ‘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’의 말씀’이었습니다.

성자는 ‘예수님’을 통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였고,
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
‘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’를 받았습니다.

<구약말씀>을 듣고 ‘종 취급’을 받고 살았던 자들이
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니 ‘자녀 취급’을 받게 되었습니다.

- ◆ 구약인들의 소원은
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.

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
그들은 ‘메시아’를 기다리며 ‘새 말씀’을 기다렸습니다.

- ◆ 구약 4000년 역사가 끝나고,
하나님은 ‘예수님’을 보내어 ‘신약 복음’을 선포하시며
<종급>에서 <자녀급>으로 차원 높여 이끄셨습니다.

또한 땅에서 <신약 복음>을 듣고 행하는 대로
그 대가로 ‘천국의 환경과 집들’ 이
<자녀급>으로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.

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<낙원 천국>입니다.

- ◆ 그리고 신약 2000년 역사가 끝나고,
하나님은 ‘시대 구원자’ 를 보내셨고,
성자는 다시 오셔서 ‘구원자’ 를 통해 ‘성약 복음’ 을 선포하시며
<자녀급>에서 <신부급>으로 차원 높여 이끄셨습니다.

이에 따라 땅에서 <성약 복음>을 듣고 행하는 대로
그 대가로 ‘천국의 환경과 집들’ 이
<신부급>으로 만들어지게 하셨습니다.

이곳이 바로 <신부급 천국>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,
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
그 공력과 수고로 인해 ‘천국의 환경과 집’ 이 건설됩니다.

하나님이 미리 다 만들어 놓고, 나눠 주는 것이 아닙니다.

국가에서 집을 다 지어 놓고 국민들에게 나눠 주지 않지요?
자기가 돈을 낸 대로 그에 맞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.
돈을 많이 낸 만큼 크고 좋은 집을 짓거나 사서 살게 됩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천국>도 그러합니다.

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
그 말씀에 순종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하고
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,

-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고
- <자기 육의 행위>로 인해
 <자기 영>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게 됩니다.
- 그에 따라 ‘자기 영이 거할 천국의 집과 환경’도 만들어집니다.

<끝>

(* 다시 화면을 보면서, 다음 말씀을 듣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<신약 낙원 천국>이 없었습니다.

예수님이 오신 후부터

하나님과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

<신약말씀>을 듣고 행하며

‘자녀 입장’에서 삼위일체를 대하며 살게 되니,
그때부터 천국에도 <신약 낙원 천국>이 건설되었고
각 사람의 행위대로 <낙원 천국의 집들>도 건설되었습니다.

땅에서 ‘하나님’을 믿고, ‘예수님’을 믿고,

<신약말씀>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

저마다 ‘낙원 천국의 집들’이 지어져 갑니다.

- ◆ 또한 <성약역사>가 시작되기 전, <시대 구원자>가 오기 전에는
 <성약 신부급 천국>이 없었습니다.

〈시대 구원자〉가 와서 〈성약역사〉가 시작된 후부터
하나님과 성자가 시대 구원자를 통해 선포하신
〈성약 말씀〉을 듣고 행하며
‘신부 입장’에서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게 되니
그때부터 천국에 〈성약 신부급 천국〉이 건설되었습니다. <끝>

◆ 〈천국〉은 차원으로 더 좋아집니다.

〈낙원 천국〉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.

〈낙원 천국〉도 처음에는 ‘지옥’에서 많이 안 떨어진 곳에 있다가
지금은 ‘천국 쪽’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.

축소시켜 〈개인〉도 보면
처음에 사망권에서 나올 때는 흑암권에 가깝게 있다가
신앙이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더 빛의 주관권으로 나오게 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◆ 〈섭리사〉도 그러합니다.

처음에 〈휴거 복음〉을 전할 때는
‘영 휴거’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‘육 휴거 복음’만 전했습니다.
이때는 천국의 집이 ‘세상 별장 정도의 좋은 새 집’이었습니다.

그러다가 신앙에 따라서 점점 좋아졌고,
‘영 휴거 말씀’을 전하면서부터는
천국에서 최고의 세계인 〈황금성〉이 건설되었습니다.

〈황금성〉은 ‘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, 신부가 된 대가’로
건설된 세계입니다. <끝>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, 설명을 잘해야 하는 부분

- ◆ 〈구약말씀〉을 듣고 ‘종급’에서 행하느냐,
〈신약말씀〉을 듣고 ‘자녀급’에서 행하느냐,
〈성약말씀〉을 듣고 ‘신부급’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
그 차원대로 ‘천국의 환경과 집’이 건설됩니다.

- ◆ 〈구약 천국의 환경과 집들〉과
〈신약 천국의 환경과 집들〉과
〈성약 천국의 환경과 집들〉은 다릅니다.

〈종의 몸〉과 〈아들의 몸〉과 〈애인의 몸〉이 다르듯 다릅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‘시대’에 따라서
‘천국을 건설하는 법’을 다르게 하셨습니다.

〈구약 - 신약 - 성약〉은 ‘말씀’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.

구약은 ‘종급 말씀’이고,
신약은 ‘자녀급 말씀’이고,
성약은 ‘신부급 말씀’입니다.

〈어떤 시대〉를 만나 〈어떤 말씀〉을 듣느냐에 따라서
〈천국의 환경과 집〉도 다르게 건설됩니다.

- ◆ 〈성약시대〉부터는 ‘말씀’이 또 달라졌습니다.

하나님과 성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

구원자를 통해 사랑하는 대상인 ‘신부로 삼는 말씀’을 주셨습니다.

그에 따라 <삼위일체와의 관계>도 ‘애인’을 대하듯 달라졌고,

<믿는 자들의 행실>도 ‘애인’을 사랑하듯 달라졌습니다.

<성약말씀>을 듣고 행하면

그 육도 영도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’로 변화되어

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삼위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데,

이것이 <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>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4>

◆ <성약말씀>을 듣고 ‘시대 구원자’와 일체 되어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‘신부 입장’에서

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자들은

그 육도 영도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’로 변화되었습니다.

그에 따라 <그에 해당되는 신부의 천국>이 건설되는데,

그곳이 바로 <황금성 천국>입니다.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었으니,

천국 최고의 세계, 삼위일체가 계시는

<황금성>이 건설된 것입니다. <끝>

◆ <성약역사>를 시작하기 전에는 선생의 영이 내 육신을 떠나서

우주의 중간쯤에 있는 <낙원 천국>에 다녔습니다.

그곳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,

남자 천사, 여자 천사들도 있었습니다.

그때 ‘예수님의 영’ 만 빛이 찬란하게 났고,
‘제자들의 영’ 은 빛이 보통이었습니다.

<낙원 천국>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‘황금 세계’ 가 아니었고,
이 땅의 정말 깨끗한 곳 같았습니다.

- ◆ <낙원>에 갔다 오고 나서 그곳이 기대에 어긋나서
‘생각한 것과 다르네. 황금 세계가 아니네.’ 생각했습니다.

그때 성자는 “<황금 세계>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신약 낙원 천국>은 <구약 천국>과는 또 차원이 달랐습니다.

말씀의 차원이 다르고,

삼위일체를 대하는 차원과 믿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

- ◆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대하는 대로,
말씀에 순종하는 대로, 행한 대로 <천국>이 건설됩니다.

천지는 변해도 이 말은 영원합니다.

- ◆ 세상에서도 무엇을 만들 때, 만드는 대로만 만들어집니다.

<나무>로 ‘책상’ 을 만들었으면 ‘책상’ 으로 만들어지지
‘집’ 이 되는 일은 평생 없습니다.

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만드는 대로만 만들어집니다.

<쌀>로 ‘밥’ 을 지었는데 ‘떡’ 이 되는 일은 평생 없습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자기 혼과 영>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하고,
<자기 영이 거할 천국>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합니다.

첫째, <종급 말씀>을 들었으나, <자녀급 말씀>을 들었으나,
<신부급 말씀>을 들었으나에 따라

<자기 혼과 영>이 변화되어 만들어지고
<자기 영이 거할 천국>도 만들어집니다.

둘째, 그 말씀을 얼마나 행했느냐에 따라

<자기 혼과 영>이 변화되어 만들어지고
<자기 영이 거할 천국>도 만들어집니다.

- ◆ <구약역사>를 만나 <종급 말씀>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면
육, 혼, 영이 ‘종급’ 으로 변화되어 만들어지고
그 영도 <구약 종급 천국>에 갑니다.

<신약역사>를 만나 <자녀급 말씀>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면
육, 혼, 영이 ‘자녀급’ 으로 변화되어 만들어지고
그 영도 <신약 낙원 천국>에 갑니다.

<성약역사>를 만나 <신부급 말씀>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면
육, 혼, 영이 ‘신부급’ 으로 변화되고,
그 영도 <성약 신부급 천국>에 가서 <황금성>을 차지합니다.

<말씀과 실천>, 그리고 <육, 혼, 영의 변화와 천국>은
하나로 이어진 ‘전개체’ 입니다.

말씀을 들은 대로, 행한 대로 일점일획도 속일 수 없이
<자기 육, 혼, 영>도 만들어지고 <천국>도 만들어집니다.

- ◆ <성약역사>로 와서 ‘시대 구원자’ 를 믿고
<성약 신부 말씀>을 듣고 행해야
육, 혼, 영이 ‘신부’ 로 변화되어 만들어지고,

천국의 집도 ‘황금성’에 지어집니다.

그런데 <성약 신부 말씀>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
이성 타락이나 하고 살면,
타락된 세계인 <흑암, 음부, 무저갱, 지옥>이 만들어지고,
자기 영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.

- ◆ 만드는 대로 100% <자기 육, 혼, 영>이 만들어지고
<자기 영이 살 곳>이 만들어져 그곳으로 갑니다.

이것은 ‘절대 진리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, 성령으로 뜨겁게 외쳐야 할 부분 (외치되 강약 조절 필수)

- ◆ 세상에서 ‘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시는 것’이 무엇인지 압니까?
<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>입니다.

곧 이 땅에서 삼위일체를 최고로 사랑하여 ‘사랑의 대상체’가 되어
땅에서 육으로도, 천국에서 영으로도
영원히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.

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
137억 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역사를 펴 오셨고,
그 터전 위에 구약 4000년, 신약 2000년 역사를 펴 오셨고,
그 터전 위에 마지막 성약 1000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.

<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소원>을 이루는 것은
‘하나님’이 하시는 게 아니라,
‘지음을 받은 인간 중’에서 해야 됩니다.

그 일을 해 주는 자가 최고로 큰 자입니다.

- ◆ <인간의 최고 목적>도 이루어 주기 어려운데,
<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목적>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
얼마나 어렵고 크겠습니까?

그 목적을 이루어 주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겠습니까?

여러분도 ‘자기의 최고 소원과 목적’을 이루어 준 자를
최고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려면
첫째, ‘신부 시대’가 와야 됩니다.

둘째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

그러려면, 땅에서 그 말씀을 받을 자격자가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.

셋째, 그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이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.

- ◆ <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말씀>은 아무에게나 안 해 줍니다.
땅에서 조건이 되는 자를 ‘시대 구원자’로 택하여 해 줍니다.

그는 가장 먼저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세 분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.

<삼위일체>를 제대로 알아야 <삼위의 목적>을 이룰 수 있기에
<삼위일체>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.

그래야 삼위일체가 그에게 ‘시대 구원의 말씀’을 해 줍니다.

신약 때같이 <성령>은 ‘하나님의 신, 하나님의 마음이다.’ 하고
어정쩡하게 알면 절대 안 됩니다.

<성령>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하며,
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해 보고, 성령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.

<성자>에 대해서도

‘여인을 쓰고 난 예수다.

예수가 삼위일체의 절대신이다.’ 하고 어설프게 알면,
성자는 ‘시대 말씀’을 안 주십니다.

선생이 산에서 ‘예수님’만 알고 찾을 때에는
성자께서 <신약성경>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.

<성자>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

성경의 깊은 인봉과 **휴거의 인봉**을 떼게 해 주셨습니다.

- ◆ <신약 복음>은 ‘신약 주관권 안에 있는 자들’에게 필요합니다.
그들을 구원하는 데 해당되는 말씀입니다.

예수님이 집회를 하러 가셨다가

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

“삭개오야.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것이다.” 했습니다.

그 말은 삭개오가 듣고 KO 될 말씀이지,

내가 듣고 KO 될 말씀은 아닙니다.

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깨닫기는 하지만,

이 시대에 해당되는 완전한 말씀은 아닙니다.

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다가

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

“너는 남편이 다섯 명 있지? 모두 마음에 안 들지?” 했습니다.

그 말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당되지, 내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.

역시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깨닫기는 하지만,
이 시대에 해당되는 완전한 말씀은 아닙니다.

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“깨끗함을 받아라.” 했는데,
그 말은 그들에게 해당되지, 내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.

역시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깨닫기는 하지만,
이 시대에 해당되는 완전한 말씀은 아닙니다.

- ◆ <신약시대 말씀>은 ‘신약 주관권에 있는 자들’에게 필요합니다.
<구약의 엄한 율법 말씀>은 ‘구약인들’에게 필요했습니다.

성자는 내게 말씀하시기를

“이 시대는

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결국 선생은 ‘절대신 삼위일체’를 100% 제대로 깨닫고,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깨달았고,
삼위일체 앞에 ‘절대 사랑의 조건’을 세웠고,
그로 인해 <이 시대 신부 역사의 말씀>을 받았습니다.

그리고 <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>께서 ‘예수님의 육신’을 쓰고
구원역사를 펴셨다는 것을 100% 깨닫고,
<완전한 휴거의 인봉>을 땔습니다.

이 시대 사람들에게 <이 시대 말씀>을 전했더니
차원이 다르게 삼위일체를 사랑하여

결국 ‘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들’ 이 되었고,
그로 인해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대상들’ 이 되었습니다.

그리고 결국 ‘휴거의 영’ 이 되게 했고,
천국 최고의 세계이며, 삼위일체가 사시는
<황금성>을 차지하게 해 주었습니다.

그리함으로 삼위일체가 137억 년 동안
<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며 역사해 온 목적>을 이루어 드렸습니다.

삼위일체가 ‘선생의 육신’ 을 통해 행하셨는데,
그 기간이 70년 걸렸습니다.

- ◆ 선생은 일생 동안 ‘오직 한 가지 일’ 을 해 왔습니다.

<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>입니다.

<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를 만드는 일>입니다.

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 주는 데도 평생이 걸립니다.

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기까지는

창조 137억 년이 걸렸고, **구원역사 6000년**이 걸렸습니다.

그 터전 위에 성자께서 ‘선생의 육신’ 을 쓰고

<성약역사>를 시작하시고 **70년 동안** 행하시어

<성약역사 당세>에 ‘창조 목적’ 을 이루신 것입니다.

- ◆ 선생은 ‘이 시대 복음’ 을 배우고 **37년 동안** 전했습니다.

성자는 산에서 일부 가르쳐 주셨고,

성약 복음 역사를 펴면서 실체를 보여 주시며

<창조 목적의 근본>을 더욱 완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.

선생이 기도하면서, 조건을 세우면서, 핍박을 받으면서,
시대 십자가를 지면서 받은 ‘복음’입니다.

그런데 악평자들은 선생이 이같이 배우고 깨달았는지 모르고
딴 데 가서 배웠다고 하며 거짓되게 악평합니다.

<시대 구원자>가 성경을 수천 번씩 읽고 <하늘의 성자>께 배우지,
우상적 종교인들에게 가서 배웠겠습니까?

그 생각이 참으로 한심하고,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 중요 부분, 핵심

◎ 알파절 말씀의 핵심을 전하며,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

◆ <그 시대>에는 ‘그 시대 복음’ 이 필요합니다.

<이 시대>에는 ‘이 시대 복음’ 이 필요합니다.

모두 ‘이 시대 복음’ 을 들었으니,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.

137억 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,
6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펼치신 터전 위에
지금 이 시대에 선포된 <성약 복음>입니다.

지구 역사상 최고의 말씀인 이 엄청난 말씀을 못 전하면,
정말 억울하고 평생 한이 됩니다.

<성자 승천일>이 ‘휴거 날’ 이라는 것을
모르고 보낸 것이 평생 한이 되듯,

<이 시대 복음>을 증거하지 못하면 평생 억울하고 한이 됩니다.

◆ 올해는 <전도의 해>입니다.

전도할 기회를 쥐도 못 하면 안 됩니다.

내년은 <전도의 해>가 아닙니다.

내년에는 전도의 기회가 지나가서 힘듭니다.

올해 전도한 자들을 기르고 키워야 됩니다.

아기를 낳을 때도

아무리 힘이 좋아도 해마다 낳고 또 낳고, 또 낳지 못하지요?

전도도 그러합니다.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.

그때 전도한 자들을 키우면서, 그들을 통해 또 전도해야 됩니다.

- ◆ <성자>도 올해는 모두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떠나셨고,
<성령>도 올해는 모두 전도하라고 잔치도 해 주었습니다.

<성자 승천일>도 제대로 못 맞고 보냈는데,

올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성자에게 무슨 면목입니까?

- ◆ 전도한 사람들을 보면 벌써 4개월 만에 3명을 수료시켰고,
어떤 사람은 10명을 가르치고 있고,
어떤 사람은 2~5명을 가르치고 있고,
어떤 사람은 신입생인데 본인이 말씀을 배우면서 전도하여
벌써 2명이나 수료시키기도 했습니다.

그런데 ‘목사’ 인데도 아직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,

정말 본이 안 됩니다.

이런 자들은 ‘목사의 직책’ 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.

12월에는 전도하지 못한 목사들이나,

전도했어도 인색하게 한 자들은 ‘직책’ 을 정리시킬 것입니다.

사명을 맡았든지, 어떤 직급이 있든지 ‘형식’은 없습니다.
진정 행해야 됩니다.

- ◆ 오늘은 <알파절 기념예배>를 드리고 있고,
내일 6월 1일은 <알파절>입니다.

<알파절>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?

선생이 ‘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’입니다.

그러니 모두 ‘이 시대 복음을 전하자!’ 하는 마음을 가져야
이날을 가장 온전히 보내는 것입니다.

- ◆ 솔직히 <알파절>에는 전도해서 잔치해야 됩니다.

그동안 3.16 축제, 부활절 축제, 꽃 여왕 축제,
어린이날 축제, 스승의 날 축제까지 했습니다.

<알파절 축제>까지 빈 몸으로 왔다 가면,
본인도 스스로 은혜가 안 됩니다.

그래서 <올해 알파절 당일>에는
그동안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잘한 자들만 모여서
간증도 하고 먹거리 잔치도 해 주려 합니다.

또 조은 목사는 선생의 몸이니,
조은 목사에게 ‘말씀’도 주어 보낼 것입니다.

그 외에는 모두 ‘본 교회’에 있으면서 참여하고,
저녁에 따로 말씀을 들어도 됩니다.

- ◆ 그동안 몇 번의 집회를 통해서

‘휴거 날 제대로 못 한 것의 한’을 풀도록 해 주었습니다.

이제 ‘나머지 못 한 것의 한’은

<휴거 600~700선>으로 차원 높이며 풀어야 됩니다.

<휴거>는 ‘모임과 행사’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.

행함으로 휴거됩니다.

고로 6월부터는 ‘행사’에 집중하지 말고,

못 한 것을 행하면서 한을 풀고,

시대를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한을 풀어야 됩니다.

- ◆ 선생은 하나님께 ‘내 육의 목숨’을 살려 주시면
3만 명을 전도하겠다고 약속하고,
30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

1년에 1000명을 전도한 꼴이 됩니다.

그리고 하나님께 ‘월명동 성지 땅 구상’을 받고,
15년 동안 ‘성지 땅’을 만들었습니다.

그리고 그곳에 청중이 몰려들게 했습니다.

여러분들은 ‘육신’뿐 아니라 ‘영혼’까지 살려 주셨으니
해마다 100명이든, 10명이든, 1명이든 꼭 전도해야 됩니다.

입만 살아서 잔치만 하지 말고, 진짜 ‘생명 잔치’를 해야 됩니다.

- ◆ 전도하는 데 핑계는 없습니다.

악령 때문에, 돈 때문에, 사명 때문에, 환경 때문에...

핑계는 없습니다.

그런 것으로 영향을 받았다면, 전도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.

선생도 ‘나의 환경’을 핑계 대지 않고 계속 전도합니다.

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순간까지,
강도 한 명을 전도하고 가셨습니다.

◆ 전도하지 않으면

<자기 육>도 ‘예정된 축복’을 못 받고

<자기 영>도 ‘황금성의 것들’을 못 받는다는 것을 모르니
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.

<전도>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진정 깨달아야 됩니다.

◆ 6월은 <전도, 관리, 기도의 달>입니다.

<알파절>을 맞이하여 ‘알파절의 의미’를 새기면서

- 6월을 ‘전도의 달’로 삼고,
- 또한 생명들을 살피는 ‘관리의 달’로 삼고,
- 40일 조건 기도도 시작했으니 ‘기도의 달’로 삼기 바랍니다.

◆ 올해는 <전도의 해>입니다.

시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전도하라고

성령님이 더욱 가르치시고, 도우시고, 역사하시며,

늘 같이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.

◆ 알파절 말씀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